



'안동 봉정사'로 떠난 열한번째 법회

7월 25일 이른 아침 청량리역에 분홍색 물결이 일렁였다.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원들이 전통과 문화의 향기가 살아 숨쉬는 안동 봉정사에 기차로 순례기도회를 떠나기 때문이었다. 사찰에서 버스를 빌려 순례를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날은 기차로 떠난다는 것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 첫 번째로 떠나는 8백 여 회원들은 저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차에 올랐다. 오전 6시 50분 순례의 새 장을 여는 첫 열차가 청량리역을 출발했다. 기차는 서서히 플랫폼을 빠져나가 속도를 내기 시작하자 금강 남한강 변을 달리고 있었다.

순례기도회 회원들은 차량 밖을 보며 옛 이야기를 꺼내며 지난 추억들로 험박 웃음을 짓고 있었다. 20여년 만에 기차를 탄다는 은평구에 사는 이애자(70) 씨는 "기도회를 가는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일인데 선목해자 스님 덕분에 기차도 하고 기차 여행도 같이 하게 됐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기차는 영주를 향해 달려가고 순례기도회 회원들은 차량 밖으로 달려가는 푸른 산과 물을 바라보며 관세음보살을 읊조리며 염주알을 하나씩 굴렸다.



안동 봉정사에서 열린 108산사 순례 기도회 11번째 법회는 기차 여행으로 진행돼 새로운 즐거움이 됐다.



아프카니스탄에 억류된 피랍자들이 무사 귀환하기를 바라는 현수막을 걸고 법회를 진행했다(사진 위) 아래 사진은 순례 동참 확인 염주를 환경에 나눠주는 모습.

8백여 신도 伏더위도 잊고 기도 삼매

선목해자 스님, 아프간 피랍 한국인 무사귀환 기원 발원문도

4 시간을 기차로 달려 영주에 도착한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원들 가장 먼저 반갑게 맞은 것은 근악대의 환영 연주였다. 영주역에서 버스로 20여분 가자 천등산 봉정사 입구에 도착했다.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원들은 각자 준비한 초코파이를 한 손에 들고 절에 오르기 시작했다. 일주문에는 인근 부대에서 걸어 놓은 '어머니 고맙습니다. 초코파이 잘 먹겠습니다'라는 대형 현수막이 기도회 회원들을 맞았다.

일주문 옆에는 순식간에 초코파이가 쌓이기 시작했다. 3일에 걸쳐 3천 여 회원들이 준비한 초코파이는 4만 여 개를 훨씬 넘겼다. 이 초코파이는 인근 부대에 있는 모든 장병들에게 보시 할 계획이다.

안동 봉정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인 대웅전(보문 제55호)과 극락전(국보 제15호) 등이 있는 유서 깊은 사찰이다. 그 뿐만 아니라 1999년 4월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방문해 극락전과 법고 시연 등을 보고 감탄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곳이기도 하다.

2000년에 대웅전 보수 공사 과정에서 1435년에 쓴 상량문이 발견 됐다. 상량문에는 '신라대 창건 이후 500여년에 이

러 법당을 중창하다'라는 기록이 있어 현존하는 최고의 건물로 추정된다. 봉정사 우측 계단을 오르면 영산암을 볼 수 있다. 영산암은 영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과 '동승'의 촬영지다. 한옥의 아름다움과 다양한 표정을 담고 있다.

봉정사에 오른 순례기도회는 분주하게 대웅전 앞 마당과 만세루 등에 기도포를 깔고 기도 준비를 시작했다. 7월 삼복 중 중복을 몇 일 지나지 않아 무더위 속에서도 참가자들은 <천수경>, 108대참회문 순으로 이어진 법회에 기도삼매에 빠졌다. 힘들지 않는다는 질문에 "뜻을 가지고 기도를 다니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고, 조금 힘들더라도 참고 인내하는 것도 공부라고 생각한다"며 밝은 얼굴로 다시 기도를 시작했다.

기도회에 참석한 봉정사 주지 자현 스님은 "자기를 바로 찾고 기도한다면 기도회 회원들이 부처님 보살님이 될 것이다"며 "여러분의 원력이 모든 중생에게 미쳐서 모두가 부처님이 될 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서 안동시 권오을 국회의원은 "108산사기도회가 대단한 신심으로 뭉쳐진 모임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되서 기쁘다"며 "농촌을 자주 찾아주는 것

이 농촌을 도와주는 것이며, 기도회의 수행과 봉사의 모습에 감사 한다"고 격려의 말을 했다.

법회가 끝난 후 선목해자 스님은 안동지역의 복지시설에 기탁해달라며 108만원의 보시금을 안동시에 전달했다. 이어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환경컵' 전달식을 하고 '환경지킴이 활동과 더불어 종이컵을 쓰지 않는 친환경 캠페인에 앞장서기 위해 우리 108산사기도회가 환경컵 사용을 하자'고 했다. 선목해자 스님은 아프카니스탄에 봉사 활동을 갔다 탈레반 무장세력에 피랍된 한국인의 무사 귀환을 위해 "현재 공포와 두려움에 가득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무사 귀환하기를 바란다"는 발원문을 낭독했다.

공식 행사가 끝난 후 순례에 참가했다는 증표인 봉정사 글씨가 새겨진 염주알을 하나씩 환경컵에 넣어 주었다.

염주알을 받은 기도회 회원들은 일주문 옆에 차려진 안동 특산물 매장에서 지역 농산물인 안동 감고등어, 마, 마늘, 김치 등을 구입했다. 8월 순례기도회는 16, 17, 18일 3일간 예산 수터사에서 열린다.

안동 / 글·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협찬 : 108산사순례기도회

전선(케이블) -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자등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아름다운 등



영가주름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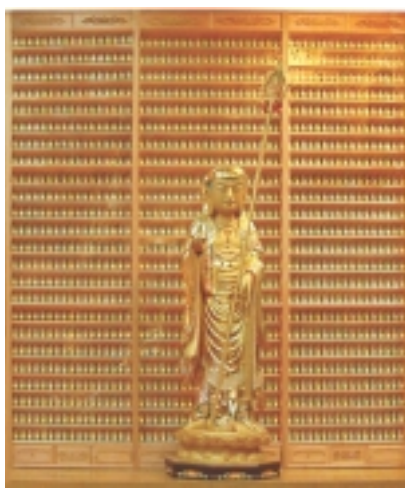


영가접등



영가공단등

※ 사양명 인쇄 시 30일 전에 전화신청 해 주십시오.



LED 인등



영구위패



부산 해운대 법륜사 법당



남양주 영도암 인등



군산상주사 위패



청사초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